

채권전략

2026/08/04

8월 Monthly

장기금리 상승은 걱정 수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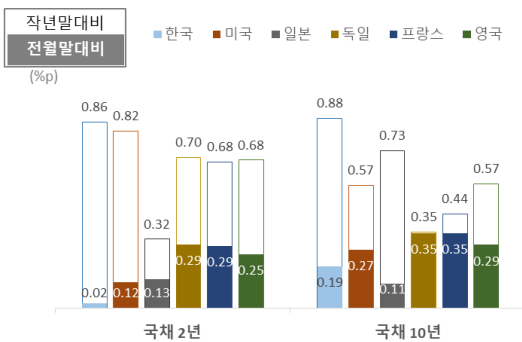
기준금리경로 기대 변화 주목



1. 개괄 : 장기 금리 상승 이슈, 재정 불안, 미래 불확실성 그리고 성장 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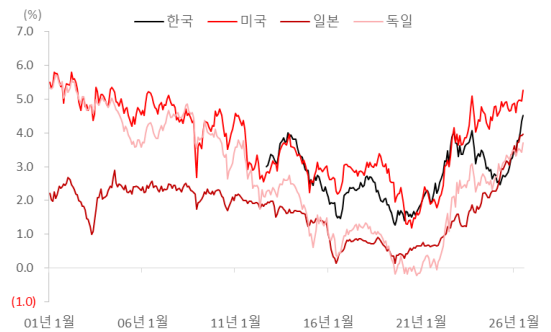
7월 중동 재확전 우려에 국내 기준금리 인상 등 글로벌 긴축기조 심화 기대로 국내외 시장 금리는(Fig.1) 상승 추세를 이어가며 연중 최고치를 경신 중이다. 월 후반 중동 긴장이 소폭 완화되고 유럽, 미국, 일본 기준금리 동결 등 보다 신중한 긴축 기조가 확인되며 단기금리 상승은 다소 진정된 모습이다. 8월 국내 금통위도 제반 국내외 여건상 시급한 인상보다는 동결로 신중한 기조를 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Fig.1 : 주요국 금리 변동폭(7/31일 현재)



자료: Bloomberg, BNK투자증권

Fig.2 : 주요국 30년 장기 국채 흐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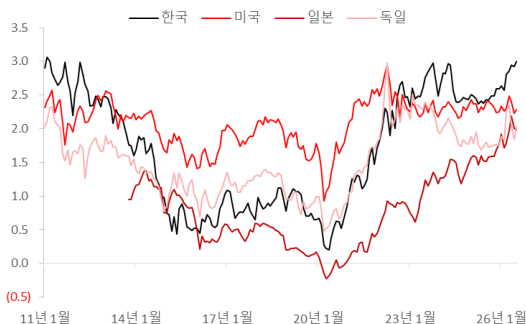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BNK투자증권

한편, 장기금리 흐름은(Fig.2) 코로나 직후를 넘어 2000년 이후 최고 수준에 이르며 투자 부진 야기와 주가 조정 등 금융시장 주요 불안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장기금리는 펀더멘탈 기반 장기균형 실질금리에 기대인플레이션과 기타 불확실성(프리미엄)을 반영하는 것으로 정의되는데 이를 기초로 해당 상승요인을 분석해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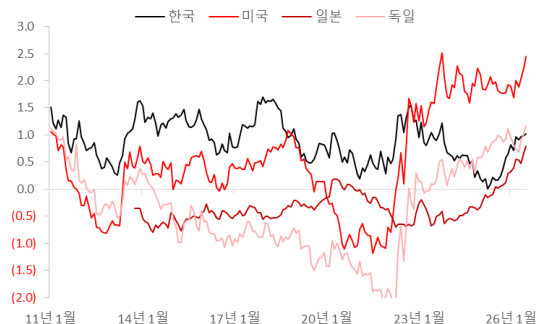
장기금리에 내재된 기대인플레이션은(Fig.3) 현수준의 높은 물가가 지속되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 현재 자국중심주의/보호주의가 직전 낮은 물가 시기로 복귀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평가된다. 이슈는 이를 제외한 실질금리 영역인데(Fig.4), 최근 장기금리 상승의 주요인으로 보이며 이의 지속성과 적정성에 대한 판단과 해석이 필요해 보인다.

Fig.3 : 중장기 기대인플레이션(한국 5년, 이외 10년)



자료: Bloomberg, BNK투자증권

Fig.4 : 주요국 실질금리 추이(한국 5년, 이외 1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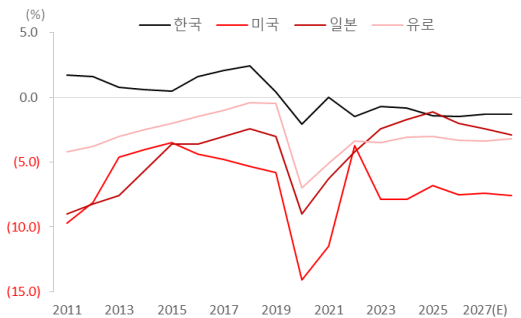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BNK투자증권

장기 실질금리 상승 요인으로 현재 가장 많이 지목되는 점은 각국의 통화/재정정책에 대한 불신이다. 글로벌 전반적으로 재정적자(Fig.5)가 커지고 정부부채 확대(채권공급 증가)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이며, 물가관리 책무 미흡 등 중앙은행 불신과도 연계되어 채권 시장은 금리 상승을 가중시키며 '자경단'이란 이름으로 재정 건전성과 적절한 통화정책의 필요성을 알리고 강요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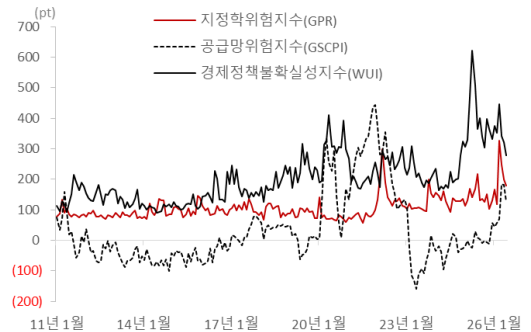
더불어 관세, 전쟁 등 자국중심/보호주의가 야기하는 미래 불확실성이(Fig.6) 상당 기간 이어질 것이라는 예상과 이에 대한 보상도 기간 프리미엄으로 반영되었다고 본다.

Fig.5 : 정부 재정적자/GDP 비율



자료: IMF, BNK투자증권

Fig.6 : 글로벌 불확실성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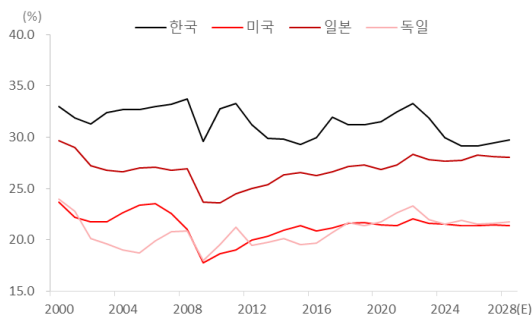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NYFed, BNK투자증권

무엇보다 관심은 펀더멘탈 관점에서의 높은 장기 실질금리 요구이다. 현재 AI 산업 등 투자 확대가 자금 수요와 이후 성장을 키울, 즉 실질 중립금리를 상향시키는 것으로 장기 금리가 반영하고 있나라는 것이다. 아직 경제 전체 영향(Fig.7)은 크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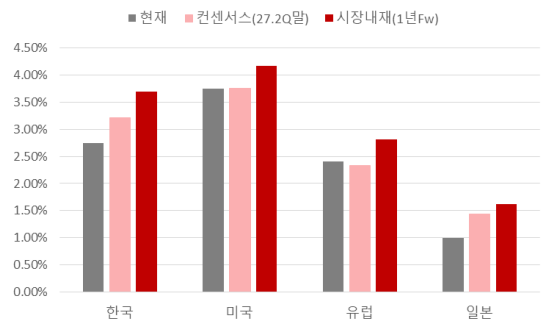
결론적으로 앞서 언급한 요인들의 지속 가능성과 적정 수준에 대해 평가와 판단이 명확하게 정리하기는 어렵지만 기간스프레드나 실질/기대인플레이션 등의 변화 여지는 당분간 크지 않아 보인다. 현재 시장금리에서 가장 저평가되고 조정(하락) 가능성이 높게 판단되는 영역은 여전히 단기금리 쪽이다.(Fig.8) 이외 주목하고 있는 영역은 미국 신용스프레드로, 역사적으로 낮은 상황(고평가)의 지속가능성이다.

Fig.7 : 고정투자/GDP 비중



자료: IMF, BNK투자증권

Fig.8 : 기준금리 현황과 컨센서스, 시장내재(1년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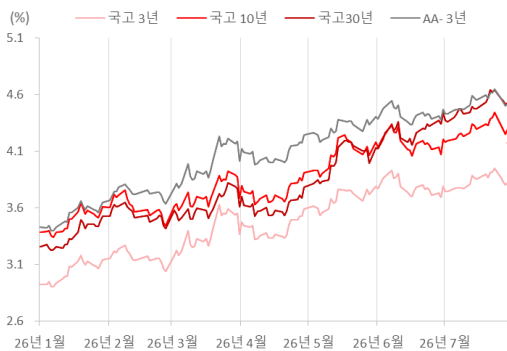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BNK투자증권

2. 시황 : 견조한 펀더멘탈 금리인상경로 지지, 국내 벡투백(8월) 인상은 아닐 것.

국내 시장금리는(Fig.9) 기록적 6월 수출 실적(사상 최초 1,000억달러 돌파) 등 성장 호조에 따른 금리 인상 가속 기대와 이란의 상선 공격 등 전쟁 확산 우려가 맞물려 상승세를 이어오다 중동 긴장 완화 등으로 7월24일을 정점으로(국고 3년 3.95%) 하향 안정된 모습이다.

전쟁 불확실성은 뒤로하고 현재 시장의 가장 큰 관심은 8월, 7월에 이은 연속 금리인상 결정 여부일 것이다. 시장금리는(Fig.10) 이미 연내 추가 2회(올해 말 3.25%), 내년 상반기 2회(1년후 3.75%)가 반영되며 최근 금리 상승을 주도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Fig.9 : 국내 시장금리



자료: Bloomberg, BNK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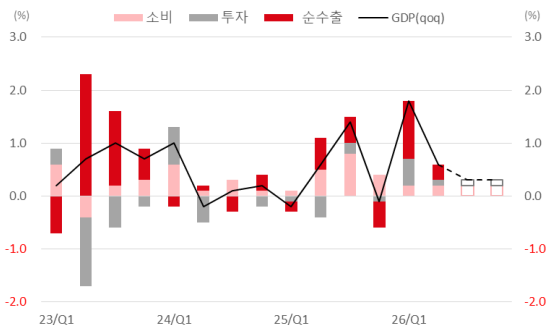
Fig.10 : 시장금리 내재 기준금리와 유가



자료: Bloomberg, BNK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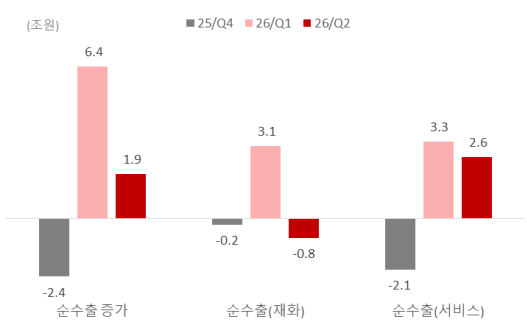
먼저 국내 성장/수요 상황을 보면, 현재 양호한 6월 경제활동으로(산업생산 전월비 +6.4%, 소매판매 전월비 +2.7%) 2분기 GDP성장률(Fig.11)은 0.6%(QoQ)를 기록, 예상보다 높은 성장세를 지지하였다. 하지만, 이후 성장은 0.3%(QoQ) 수준에 그치며 둔화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순수출 기여가 0%p로 떨어질 전망에 기인하는데, 순수출 전분기대비 증감(Fig.12)에서 보듯 상품 기여는 제한적인 가운데 전쟁 여파에 따른 여행수지 개선 등 서비스 수지 기여가 컸던 바, 이후 추가 개선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Fig.11 : 국내 GDP 성장률(QoQ) 및 항목별 기여도



자료: 한국은행, BNK투자증권

Fig.12 : 순수출 전분기대비 증감(실질 계절조정 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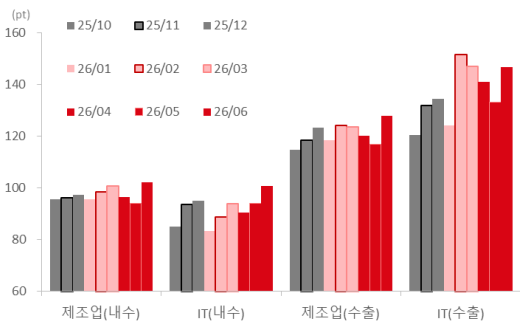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BNK투자증권

제조업 제품 출하지수(Fig.13)에서 보면, IT 수출과 내수를 반영한 전체 성장세는 크게 두드러져 보이지 않는다, IT도 1분기 수출 출하량 급증 이후 회복 수준을 보이고 있고, 2분기 IT 내수 출하 증가가 눈에 띄나 삼성전자 국민감사제 할인행사 영향이 큰 것으로 추정되는 바 개선 지속성은 의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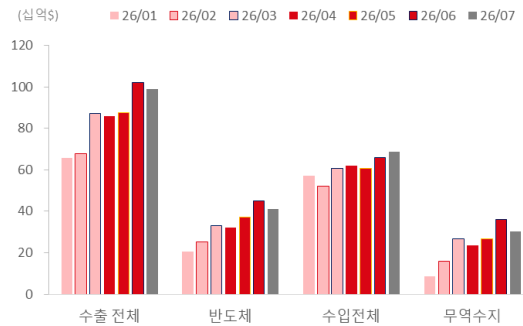
7월 수출입 실적(Fig.14)에서도 수출 금액과 무역수지가 전월비 줄어든 상황이다. 물량은 제한적이더라도 반도체가격 상승에 따른 수출과 무역수지 호전은 국민총소득(GDI) 개선 등 경기/수요 지지 요인이겠으나 이 또한 2분기를 정점으로 회복할 것으로 보인다.

Fig.13 : 제조업 및 IT관련 제품출하 지수(계절조정)



자료: 국가데이터처, BNK투자증권

Fig.14 : 최근 수출입 동향



자료: 관세청, BNK투자증권

물가 부분은 최근 국내 일반 소비자제품 가격인상 뉴스가 점차 늘어나고 중동전쟁 불확실성으로 유가 불안 또한 우려스럽다. 하지만, 소비자물가수준전망(Fig.15)과 같이 인플레이기대심리는 소폭이나 안정을 보이고 있어 급격한 금리인상이 필요할 만큼 기대심리 확산과 수요 압력이 큰 상황으로 보이지 않는다.

무엇보다 주요 선진국 대부분 점진적 금리인상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대외여건과 정책 공조차원에서도 신중한 대응이 적절해 보인다. 종합하자면, 분기 1회 인상 시나리오가, 8월 동결 후 10월 인상 가능성이 높게 판단된다. 8월 금통위 점도표는 5월(Fig.16)대비 3.25% 의견이 늘어나겠지만 평균 3.0%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Fig.15 : 소비자물가와 기대심리, 기준금리



자료: 한국은행, BNK투자증권

Fig.16 : 한은 금통위원 점도표(26.5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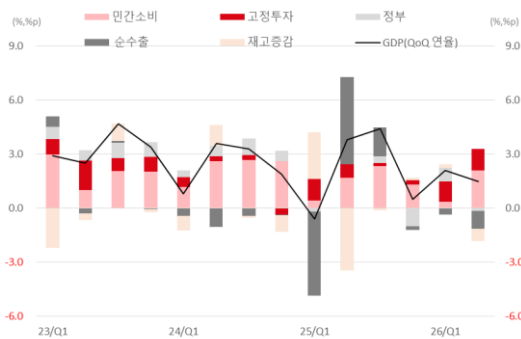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BNK투자증권

미국의 경제 상황은 글로벌 전반적인 긴축기조 부담을 조금은 누그러뜨리며 단기금리 안정을 지지하는 모습이다. 7/29일 FOMC 금리 동결과 함께 2분기 GDP와, 6월 PCE 물가지수 모두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며 긴급한 금리인상 경로와는 거리를 두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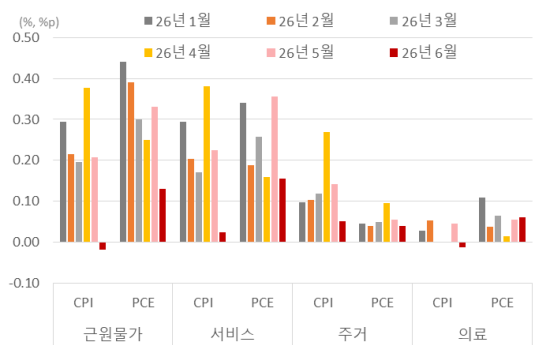
미국 2분기 GDP(Fig.17) 속보치 1.5%의 주요 내용은 순수출 -1.0%p, 재고증감 -0.7%p 영향이 커 실질 소비와 투자의 개선세는 크게 약화되지 않아 견조한 성장세가 유지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물론 좀더 세부적으로 보면 상반기 OBBBA 세금환급과 월드컵 영향에 따른 일시적 민간소비 확장, 고정투자 부문 소프트웨어와 IT장비투자 전분기비 위축이 눈에 띄나 전체적인 소비와 투자 주도 성장 흐름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Fig.17 : 미국 GDP, 항목별 기여도(QoQ 연율)



자료: Bloomberg, BNK투자증권

Fig.18 : 미국 근원 소비자 물가 추이(M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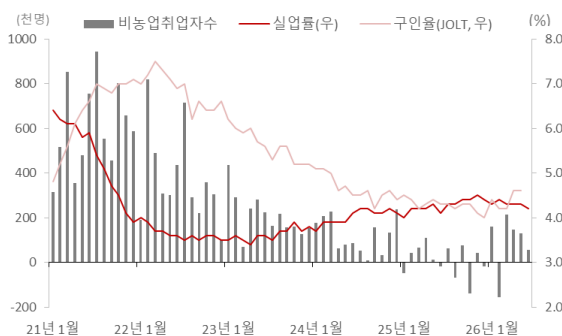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BNK투자증권

6월 PCE 물가도(Fig.18) 소비자물가(CPI)와 같이 하향 안정 추세를 이어가 근원 상품/서비스의 가격 상승 확산 우려를 낮추고 있다고 본다. 물론 유가 추가 급등시 가격인상 부담이 가중되겠지만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서비스, 그 중 주거와 의료 부분이 안정을 보이고 있어 물가 하향 안정 시나리오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고용부분도 낮은 수준의 균형(Fig.19) 상태가 유지될 전망으로 당분간 기준금리 향배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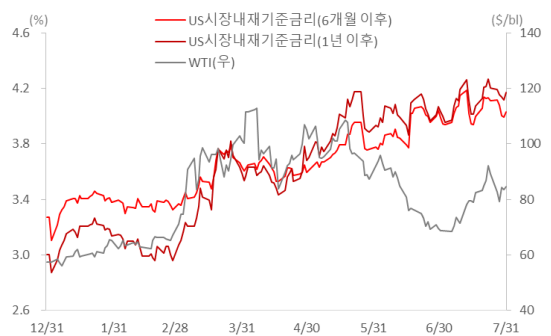
시장은(Fig.20) 2회 수준의 금리인상을 강요하고 있으나 결론적으로 연준은 원론적 구두 대응 수준에 머무르며 연말 연준 TF 결과까지 금리 동결을 이어갈 것으로 본다.

Fig.19 : 미국 고용 지표



자료: Bloomberg, BNK투자증권

Fig.20 : 미국 시장금리내재기준금리와 유가



자료: Bloomberg, BNK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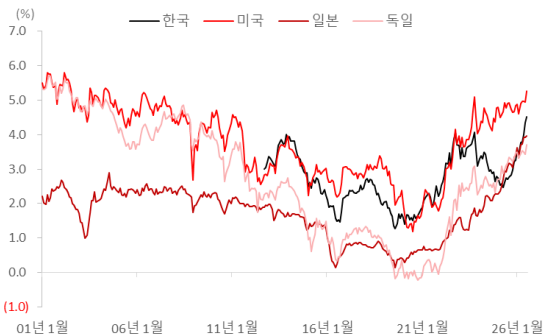
3. 이슈 : 장기금리 상승, 새로운 국면?

최근 장기금리가(Fig.21) 코로나 시기를 넘어 2000 년 이후 최고 수준에 이르며 투자 부진 야기와 주가 조정 등 금융시장 전반 불안의 주요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장기금리 구성요인 분해를 통해 최근 긴축 여건의 영향 이외 중장기적 보상(프리미엄) 요인도 새롭게 고민해야 될 부분도 있지 않나 판단되어 이를 정리해 본다.

먼저 장기금리(국채 30 년)에서 경기/물가에 대한 순환적 정책대응 영역인, 기준 금리 경로를 대변하는 단기금리(국채 2 년)를 빼고 보면(Fig.22), 레벨 측면에서 일본을 제외하고는 과거대비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지 않다. 즉, 단기금리 상승이 장기금리 상승에 더 많은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된다. 과거 스프레드 평균과 고점 수준과 비교해보더라도 우리나라가 다소 높으나 미국과 독일은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해당 구간을 중기(10 년-2 년, Fig.23)와 초장기(30 년-10 년, Fig.24) 구간으로 나누어 보면, 중기 구간은 단기금리/매크로 변동요인 영향으로 높은 등락을 보이고 초장기 구간은 제한된 범위내 움직임으로 역사적 변동성 범위내로 인식된다. 초장기 구간 일본의 레벨 상향과 우리나라의 급등이 눈에 띄는데, 이는 일본의 공격적 재정확장에 대한 프리미엄 확대와 국내 보험사 초장기물 수급불안 영향으로 해석된다.

Fig.21 : 30년 국채금리 추이



자료: Bloomberg, BNK투자증권

Fig.22 : 국채 30년 - 2년 스프레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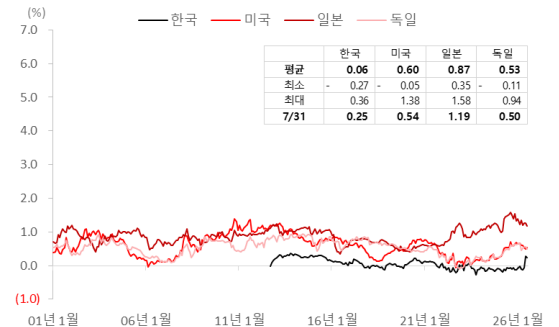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BNK투자증권

Fig.23 : 국채 10년 - 2년 스프레드 추이



자료: Bloomberg, BNK투자증권

Fig.24 : 국채 30년 - 10년 스프레드 추이



자료: Bloomberg, BNK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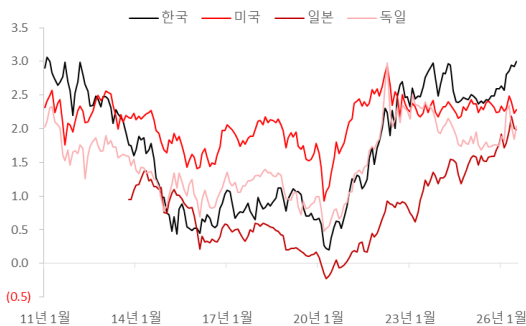
장기금리를 펀더멘탈 기반의 인플레이션과 실질금리 영역으로 분해해서 보면, 해당 만기 인플레이션연계채권(TIPS)으로 산출한 기대인플레이션은(Fig.25) 주요국마다 편차는 있으나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돌아간 상황이다.

해당 명목금리에서 기대인플레이션을 차감한 실질금리 현황도(Fig.26), 미국이 가장 큰 상승폭으로 금융위기 이후와 레벨을 달리하는 모습이지만, 기대인플레이션과 유사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국내 실질금리는 주요국들과 달리 평균 0.9%를 기준으로 등락을 보이며 상당히 균형잡힌 모습이다.

기대인플레이션을 과거 실제 인플레이션과(직후 1년 CPI 평균, Fig.27) 비교해보면 기간(11.1월~26.6월) 두 지표 평균 차이가 크지 않은 수준(한국 0.33%p, 미국 0.61%, 일본 0.42%p, 독일 0.72%p)으로, 해석/평가 활용에 무리없다고 판단된다. 당연 실질금리도 기대와 실제 인플레이션 차이(변동성) 정도 고려하면 될 것이다.

현재 기대인플레이션 수준에 대한 지속성과 적정성에 대해 평가하자면, 현재 실제 물가보다 소폭 낮은 수준의, 직전 저물가 시기보다 높은 물가가 지속되는 것은 현재 정치경제 환경인 자국중심주의/보호주의 영향을 감안할 때 적정 수준으로 인식되고 지속가능성 또한 높게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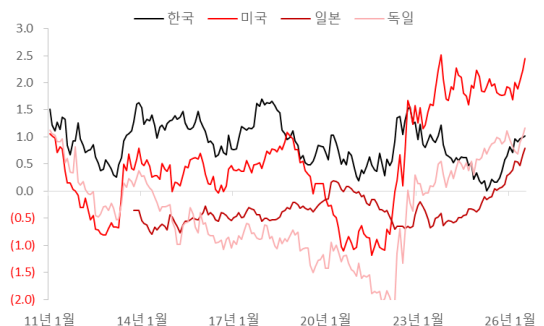
Fig.25 : 중장기 기대인플레이션^{주)}(한국 5년, 이외 10년)



주) 해당만기 국내 - 인플레이션연계채권(TIPS) 금리

자료: Bloomberg, BNK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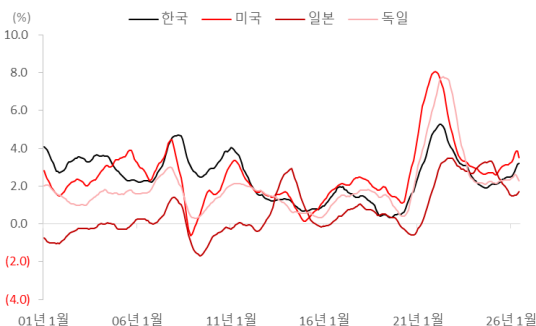
Fig.26 : 주요국 실질금리^{주)} 추이(한국 5년, 이외 10년)



주) 인플레이션연계채권(TIPS) 금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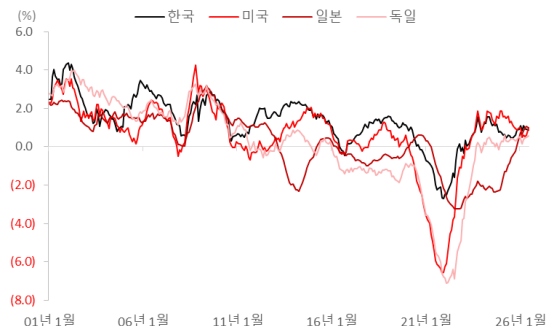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BNK투자증권

Fig.27 : 인플레이션 추이(CPI 직후1년 평균)



자료: Bloomberg, BNK투자증권

Fig.28 : 국채10년 - 인플레이션(CPI 직후1년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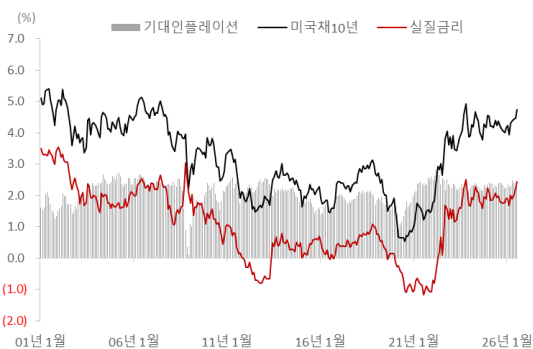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BNK투자증권

실질금리 영역은, 미국의 경우 명목금리의 흐름이 실질금리에 따라 움직이는 모습으로 (Fig.29) 금리평가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실질금리를 크게 좌우하는 요인은 아무래도 실질경제성장률이(Fig.30) 되겠고, 기타 정책과 수급, 심리적 불확실성 요인 등이 추가 프리미엄으로 반영된다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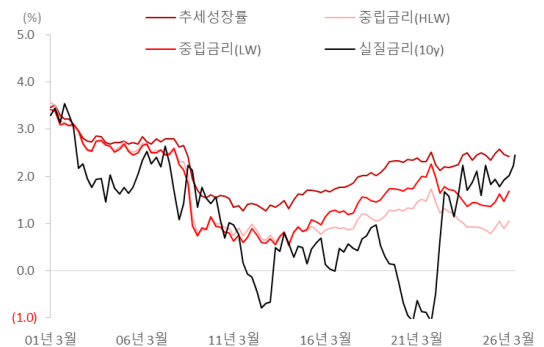
미국의 최근 실질금리 반등 상황에 대해 그럴듯한 펀더멘탈 배경을 찾기 어렵다. 현재와 이후 실질경제성장률에 대해 앞서 금리인상 여건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견조한, 현수준 유지 전망으로 성장 급등이나 뚜렷한 우상향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단기 실질금리 영역인 중립금리 또한 후행적이지만 큰 폭의 반등은 없을 것으로 추정된다.

Fig.29 : 미국채 10년, 기대인플레이션, 실질금리



자료: Bloomberg, BNK투자증권

Fig.30 : 미국 성장률, 중립금리^{주)}, 실질금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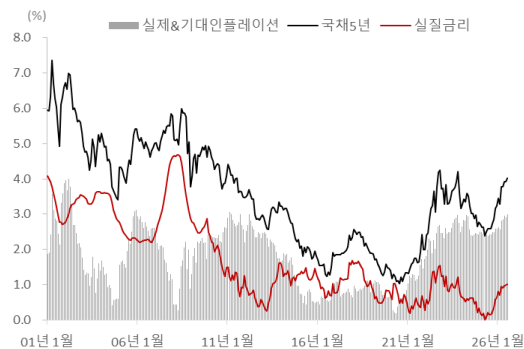
주) 미 뉴욕연은 중립금리(HLW, LW) 자료 기준

자료: Bloomberg, BNK투자증권

국내 실질금리의 경우는 펀더멘탈 상황이 실질금리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 실질금리 상승 영향도 있었겠지만, 기존 GDP성장률과의 관계를 정상적으로 투영한 유사한 흐름이 현재도 이어지고 있다고 판단된다.(Fig.32)

현재 미국 실질금리와 또다른 큰 차이는, 앞서 기간스프레드나 실질금리 과거 추이에서 보았듯이 국내 실질금리의 레벨은 과거 평균 수준에서 성장률 꺾적과 단기 실질 중립금리와 큰 괴리를 보이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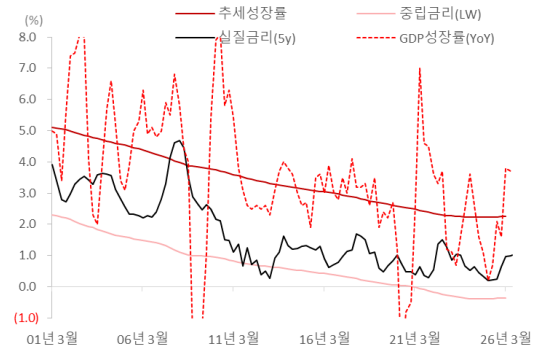
Fig.31 : 국고채5년, 기대인플레이션^{주)}, 실질금리



주) 실제(1년평균CPI) 199.11월까지, 기대는 2009년12월 이후

자료: Bloomberg, BNK투자증권

Fig.32 : 한국 성장률, 중립금리^{주)}, 실질금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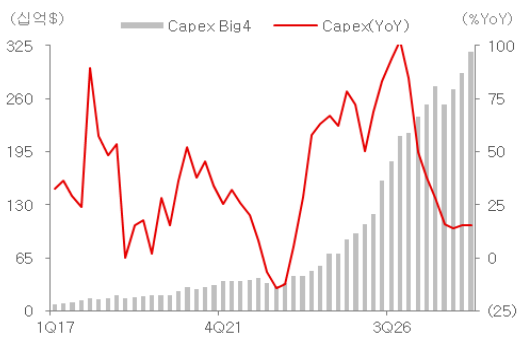


주) 미 뉴욕연은 중립금리(LW) 모델 한국 적용 자체 계산

자료: Bloomberg, BNK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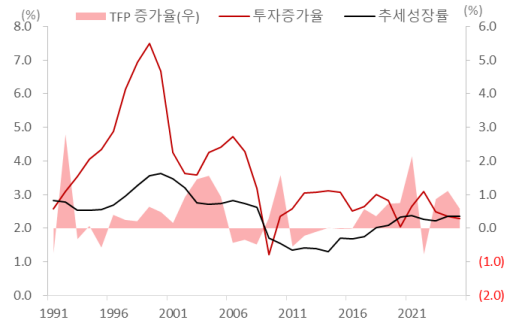
미국의 최근 급등을 성장률로 설명하려 든다면 최근 AI 투자 확대를 배경으로 얘기할 수 있다. 시장 관심이 큰 AI하이퍼스케일러 주요 4사(MS, 아마존, 구글, 메타)의 자본적지출(Capex) 예상 규모는(Fig.33) 계속 늘어나고 있다.(전분기대비 26년(E) +335억\$, 27년(E) +1,486억\$) 가시적인 기간내 미국 GDP 성장률 궤적을 우상향으로 변화시키기는 어렵겠지만, 미국의 과거 투자 확대 이후 총요소생산성(TFP) 증가 등 긍정적인 투자 결과를 만들어 온 점을(Fig.34) 고려시 이후 성장 레벨 상향을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AI 등 관련 투자의 확산이 경제 전반적인 생산성/고용 등 긍정적 결과로 순조롭게 이어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은 의문시 된다.

Fig.33 : AI Big4(MS, 아마존, 구글, 메타) 자본적 지출



자료: Bloomberg, BNK투자증권

Fig.34 : 미국 투자 및 TFP^{주)}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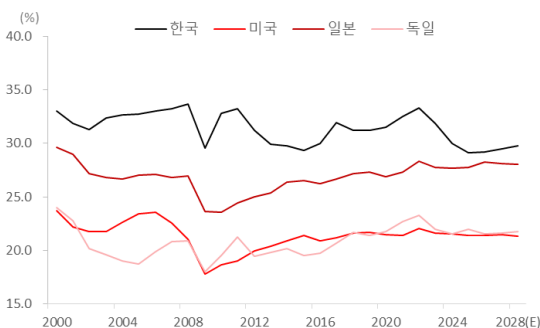
주) 컨퍼런스보드 성장요인분해기준 투자 및 TFP 증가율

자료: IMF, ECOS, BNK투자증권

IMF 최근(26.4월) 추정을 포함한 GDP내 고정투자 비중(Fig.35)을 보더라도 AI 투자가 제반 산업의 투자 부진을 크게 초과해서 매우지는 못할 것으로 평가한다, 긍정적으로 보자면 글로벌 대부분 미미하나 고정투자 비중의 점진적 확대 기조가 이어지는 정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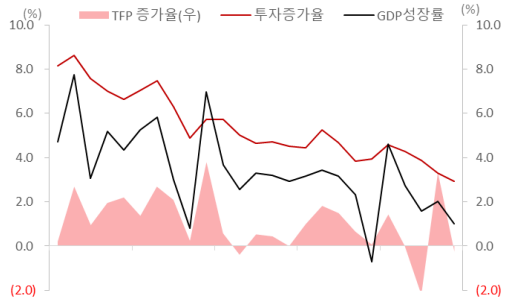
우리나라는 건설투자 부진과 제조업 해외진출 등으로 고정투자 둔화가 이어지고 있고, 투자의 TFP성장과 연결고리도 단기적 개선에 치우친 형태로 미진한 모습이다.(Fig.36) 국내 실질금리의 우하향 흐름을 지지하는 큰 배경이기도 하고 추세 변화가 쉽지 않겠지만, 향후 공격적 투자 확대는 실질금리 상승을 지지할 가능성은 잠재해 있다.

Fig.35 : GDP내 고정투자 비중



자료: ConferenceBoard, BNK투자증권

Fig.36 : 한국 투자 및 TFP 증가율^{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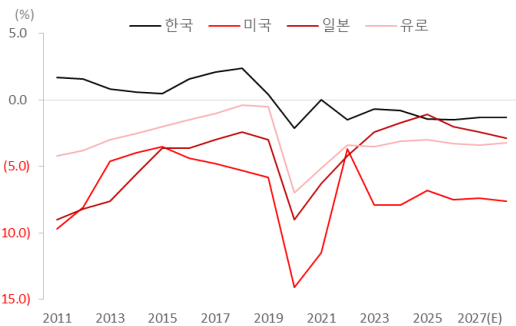
주) 컨퍼런스보드 성장요인분해기준 투자 및 TFP 증가율

자료: ConferenceBoard, BNK투자증권

성장률 등 펀더멘탈로 설명하기 어려운 실질금리 상승은 정부의 재정적자 확대, 국제 발행 증가, 정부 부채비율 상승 등 기간 불확실성 영역이 가장 크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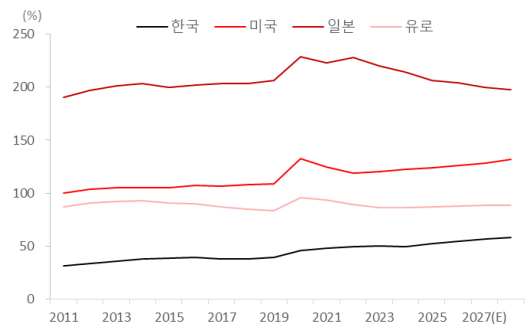
미국의 재정적자/GDP 비율이(Fig.37) 주요국 대비해서 크고 줄어들기 보다는 늘어날 우려가 큰 점에서 근래 실질금리가 높게 유지되고 있는 주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일본 실질금리의 급격한 상승 또한 재정적자 규모나 부채비율 유지 수준을 떠나 공격적 재정정책에 대한 우려와 불확실성이 실질 기간프리미엄 확대시킨 것으로 회자되고 있다.

Fig.37 : 주요국 재정수지/GDP 비율



자료: IMF, BNK투자증권

Fig.38 : 주요국 정부부채/GDP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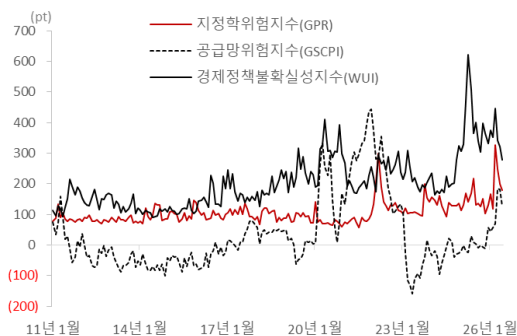


자료: IMF, BNK투자증권

글로벌 불확실성 확산은(Fig.39) 높은 기대인플레이션 유지 배경이기도 하지만 재정 확대/불안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며 기간프리미엄을 키우는 것으로 평가된다. 지정학적 위험이나 공급망 불안, 정책 불확실성 모두 재정 부담을 더 키우는 요인이기 때문이다.

6, 7월 미국 실질금리 추가 급등 배경에 연준의 정책변화/불확실성이 확대된 것으로 평가된다. 기존대비 축소된 시장과의 커뮤니케이션에, 주요 정책과 기준에 대한 TF 진행으로 뚜렷한 입장을 미루고 있는 관계로 시장금리의 변동성은 더 커진 상황이며, 이는 곧 불확실성, 기간프리미엄으로 반영되고 있다고 본다.

Fig.39 : 글로벌 불확실성 지수



자료: Bloomberg, BNK투자증권

Fig.40 : 미 연준 TF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시장소통	포워드가이드라인(정책방향) 적정성, 소통 체계
대차대조표	준비금 운영 체계 QE/QT 적정성 평가
데이터	경제지표의 후행성 보완
생산성 및 고용	AI 생산성, 고용 영향 통화정책/기준 변화
물가	물가목표/관리체계 점검 통화정책/기준 변화

자료: FRB, BNK투자증권

3. 전망 : 기준금리경로 기대부터 안정, 이후 중장기 기간스프레드 안정 예상

앞서 단기금리와 장기금리 상승에 대한 점검/분석 의견을 정리하면 여전히 단기금리구간(~3년)의 기간스프레드가 가장 저평가되어 있다고 판단되고, 최근 높아진 중장기 기간스프레드는 상대적으로 적정 수준으로 평가된다.

만기 구간별 과거 기간스프레드 추이(Fig.41)에서 보듯이 현재 국채3년-기준금리 스프레드가 역사적으로 높은 수준인데, 현재 반영된 높은 성장과 물가 기대가 계속 지지되기보다는 하향 안정화 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한다. 그 이유는 현재 수출호전에 따른 성장률과 물가 전이폭이 기대보다 크지 않은 가운데 성장/물가/수출 모두 Peak out 상황으로 모멘텀 둔화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국채 10년-3년은 과거 평균 수준으로, 실질금리와 기대인플레이션을(Fig.42) 보더라도 과도한 기대나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적정 수준으로 해석된다. 국채 30년-10년 구간의 최근 급등이 이례적이나 보험사의 초장기 수급 영향이 크게 지배하는 영역으로, 과거 수요 우위로 축소된 해당 기간스프레드가 수급 균형으로 정상화되는 과정이라고 판단된다. 보험사 장기보장성 수입보험료의 완만한 흐름과 과거보다 완성된 ALM 매칭으로 제한적인 듀레이션 수요를 감안할 때 과거로 돌아가기 보다 현재 상황이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중동 전쟁 불확실성이 여전하고 관련 시장금리 변동성 부담은 피할 수 없겠으나, 시장금리에 반영된 중장기 기대인플레이션은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 현 수준에서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본다. 전쟁포함 공급망, 보호주의 정책 등 제반 불확실성 위험이 기대인플레이션에 적정수준으로 반영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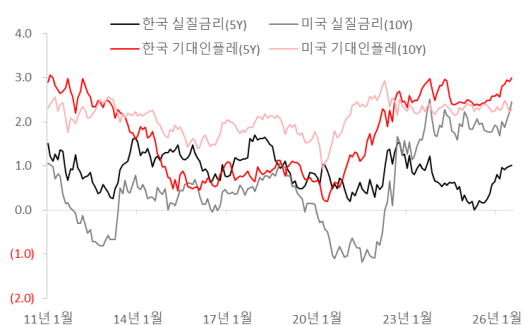
최근 미국의 미국채 30년이 2000년대 초반 수준으로 상승한 점에 대한 의견은 펀더멘탈 측면, 인플레이와 성장 기대 영역보다는 재정과 정책 불안 등 미래 불확실성에 대한 기간프리미엄 반영으로 평가된다. 이의 적정수준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판단은 조심스러우나 쉽게 해소되기보다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한다. 지정학적 위험, 자국중심/보호주의 상황이나 정부 재정정책 변화 가능성은 적다고 보며, 다만, 미국 통화정책에 대한 불안/불신에 따른 기간프리미엄 상승분은 연준 TF 결과가 나오는 4분기 내외로 다소 진정/소멸될 개연성은 있다고 본다.

Fig.41 : 국내 시장금리 기간스프레드



자료: 한국은행, Bloomberg, BNK투자증권

Fig.42 : 실질금리와 기대인플레이션(한국, 미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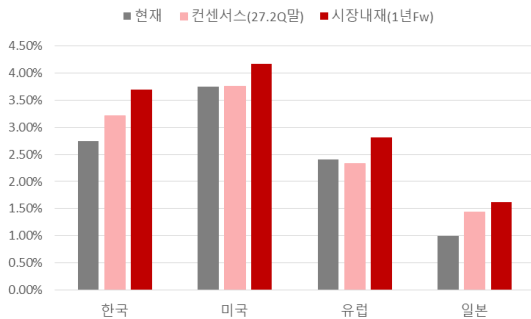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Bloomberg, BNK투자증권

이후 시장 시나리오는 중동 전쟁 불확실성은 추가 악화는 되지 않는 것을 전제로, 단기금리에 반영된 기준금리경로 기대의 하향 안정이 먼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8월말 국내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하며 현재 시장금리에 반영된 올해 추가 2차례 인상(3.25%)이 4분기 1차례(3.0%)로 조정 되고, 급격한 인상 경로보다는 신중한 대응으로 재평가될 것으로 본다. 이유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내외 여건과 펀더멘탈의 수준이 긴급한 대응의 필요성이 적다고 판단하기 때문이고, 대외 주요국 모두 신중한 금리 인상을 피력하고 있는 점 또한 그 배경이 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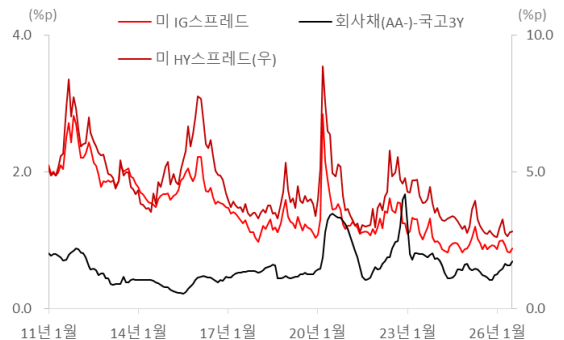
시장 금리에 반영된, 기준금리경로(Fig.43)의 과도한 시장 기대 이외, 시장 쏠림이 주목되는 영역은 글로벌 신용스프레드(Fig.44) 수준이다. 국내 신용스프레드(회사채 AA- - 국고3년)는 과거 흐름에서 크게 이탈한 모습이지 않고, 시장금리 움직임과 맞물려 적정 수준의 등락을 보이고 있으나, 미국 투자등급(IG)과 투기등급 하이일드(HY) 스프레드는 역사적 저점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AI 투자 확대에 따른 현금흐름 부담(Fig.45)과 관련 투자 수익성과 지속성에 대한 우려로 해당 업체 CDS가(Fig.46) 최근 다시 급등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지만, 전체 IG와 HY스프레드는 아직 미미한 움직임에 그치고 있다.(7월말 현재 전월대비 IG +7bp, HY +6bp)

Fig.43 : 주요국 기준금리 시장전망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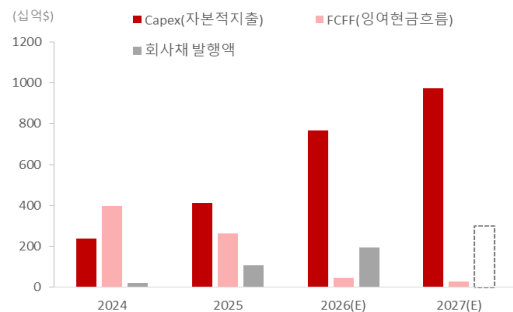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BNK투자증권

Fig.44 : 신용 스프레드 추이



자료: Bloomberg, BNK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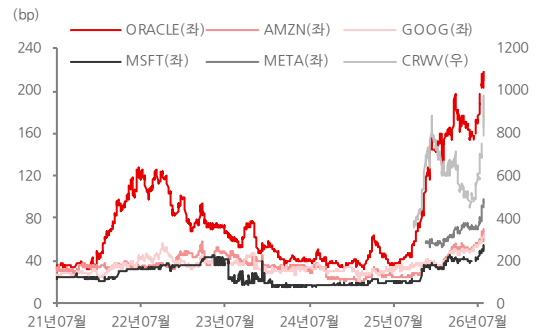
Fig.45 : 주요 AI기업^{주)} 주요 현금흐름



주) MS, 구글, 아마존, 메타, 오라클 합산

자료: Bloomberg, BNK투자증권

Fig.46 : AI관련 주요 회사 CDS 스프레드



자료: Bloomberg, BNK투자증권

이를 종합한 시장금리 전망은 전월 의견과 큰 변화는 없다. 국내 금리인상이 필요한 여건이나 긴급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지 않고, 미국 등 주요국 들도 신중한 점진적 인상 기조가 이어질 것을 전망된다. 당장 시장금리에 반영된 기대가 급격히 조정될 요인은 적으나, 과도한 기대에 대한 평가는 실제 경제 상황 전개와 기준금리 결정 등으로 적정 수준으로 수렴될 것이다.

구체적 8월 시장 금리 전망은 아래 표(Fig.47)와 같다. 전체적으로 완만한 하락 흐름으로 예상되고, 앞서 정리 분석한 바와 같이 기간 및 신용스프레드는 조금 더 천천히 적은 폭으로 하향 안정될 것으로 예상한다.

Fig.47 : 시장금리 전망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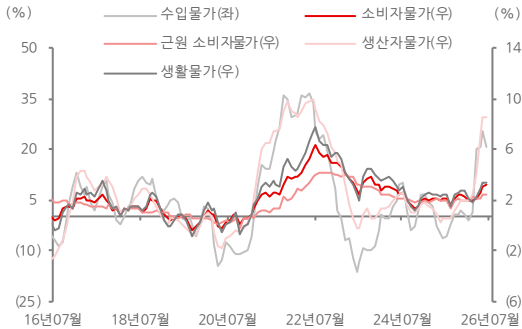
구분	26.7월		26.8월		26.3Q	26.4Q
	평균	범위	평균	범위	평균	평균
기준금리(기말)	2.75	-	2.75	-	2.75	3.00
국고채 3년	3.82	3.75 ~ 3.95	3.65	3.55 ~ 3.90	3.65	3.45
국고채 10년	4.29	4.19 ~ 4.45	4.15	3.95 ~ 4.35	4.15	3.95
AA-3년	4.52	4.43 ~ 4.65	4.35	4.20 ~ 4.55	4.35	4.20
미기준금리(상단)	3.75	-	3.75	-	3.75	3.75
미국채 10년	4.59	4.47 ~ 4.73	4.55	4.45 ~ 4.75	4.55	4.30

자료: 금융투자협회, BNK투자증권

<첨부> 주요지표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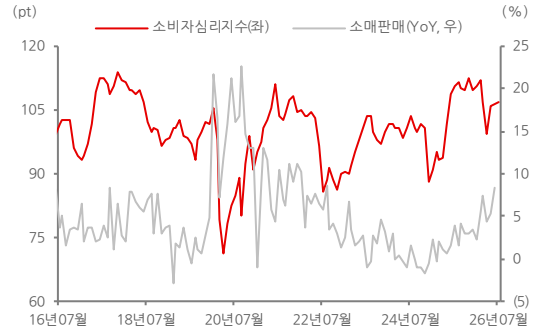
한국 주요 경제 지표

Fig.48 : 주요 물가 지표(Yo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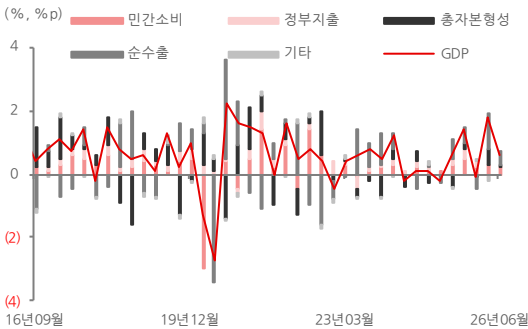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BNK투자증권

Fig.49 : 소비자심리지수, 소매판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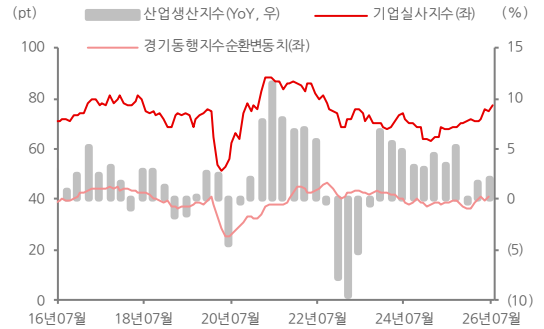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BNK투자증권

Fig.50 : GDP 성장률(QoQ), 기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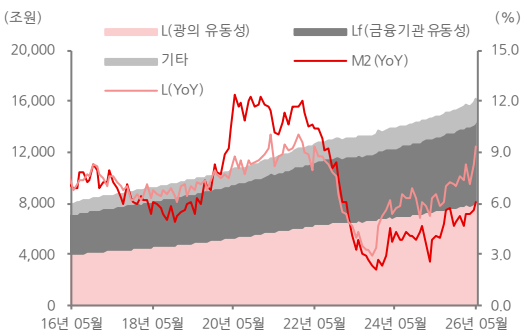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BNK투자증권

Fig.51 : 산업생산, 경기실사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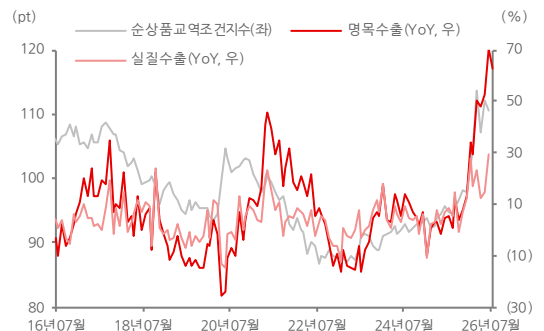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BNK투자증권

Fig.52 : 통화량



자료: 한국은행, BNK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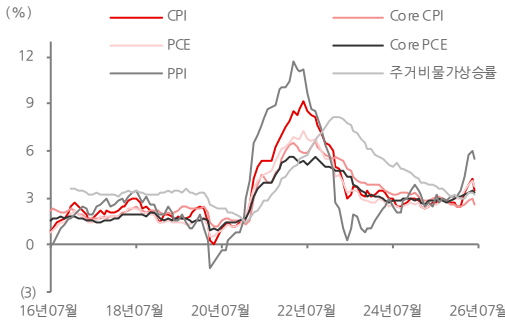
Fig.53 : 수출증가율, 교역조건수지



자료: Bloomberg, BNK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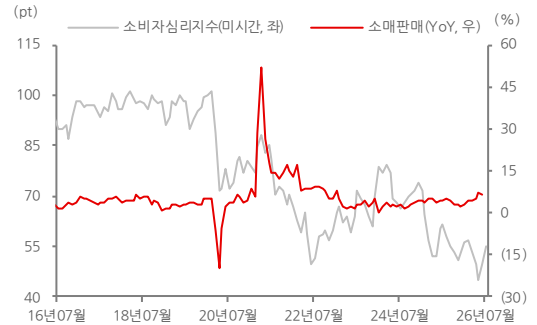
미국 주요 경제 지표

Fig.54 : 주요 물가 지표(Yo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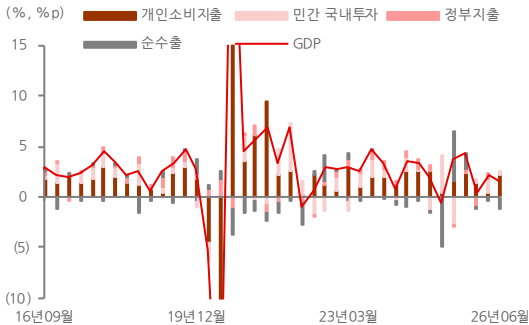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BNK투자증권

Fig.55 : 소비자심리지수, 소매판매(Yo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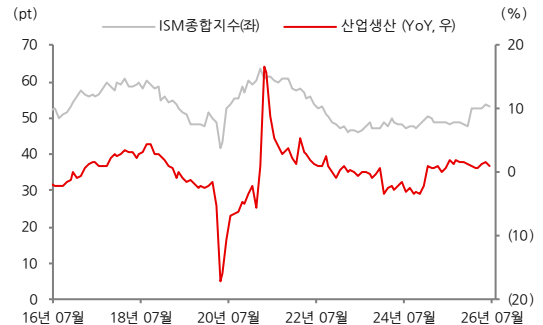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BNK투자증권

Fig.56 : GDP 성장률(QoQ연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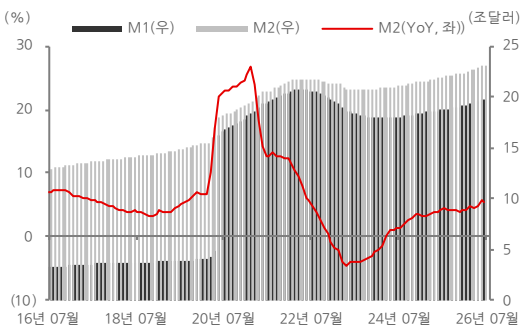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BNK투자증권

Fig.57 : ISM종합, 산업생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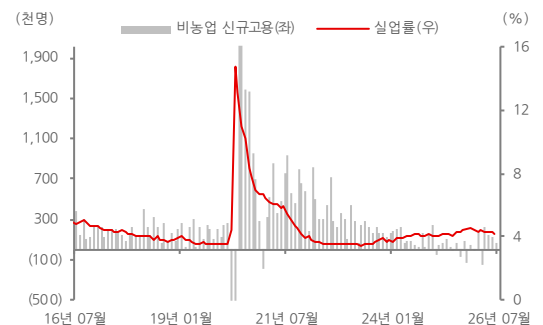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BNK투자증권

Fig.58 : 통화량



자료: Bloomberg, BNK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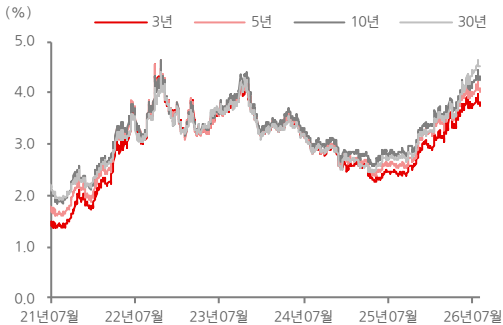
Fig.59 : 고용 지표



자료: Bloomberg, BNK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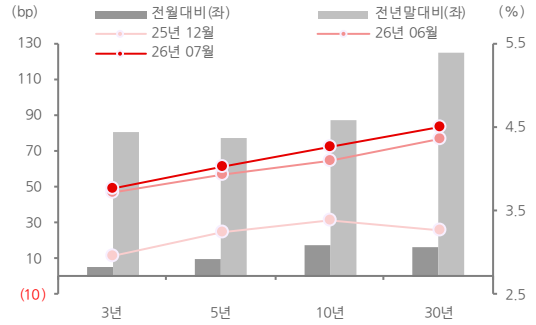
한국 시장 가격 지표

Fig.60 : 국채 만기별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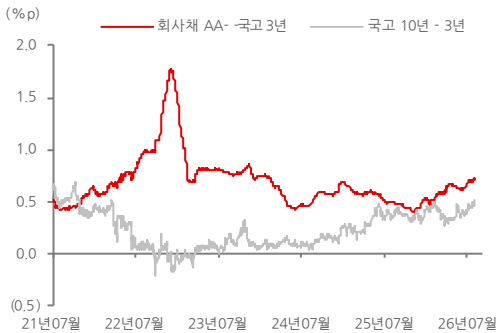
자료: 금융투자협회, BNK투자증권

Fig.61 : 국채 만기별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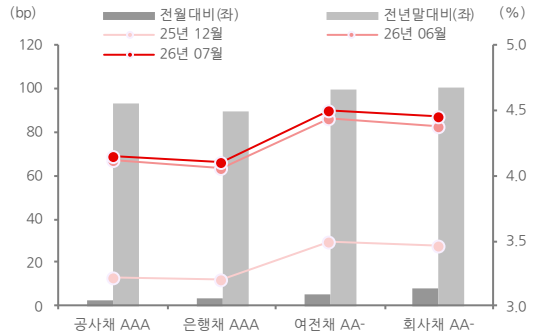
자료: 금융투자협회, BNK투자증권

Fig.62 : 신용, 기간 스프레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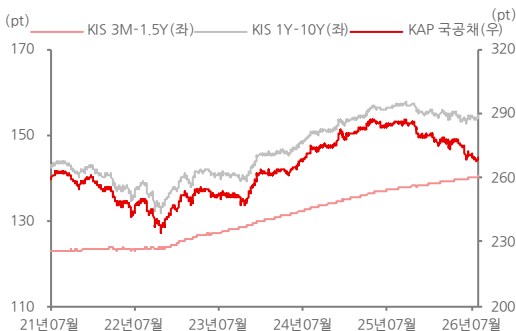
자료: 금융투자협회, BNK투자증권

Fig.63 : 회사채별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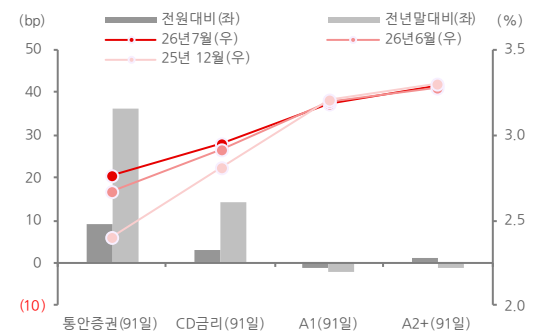
자료: 금융투자협회, BNK투자증권

Fig.64 : 채권지수



자료: 금융투자협회, 한국자산평가, BNK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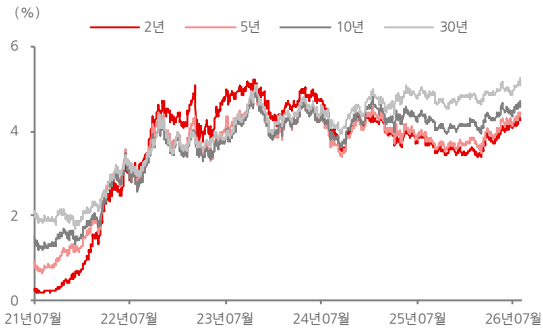
Fig.65 : 단기 금리 추이



자료: 금융투자협회, BNK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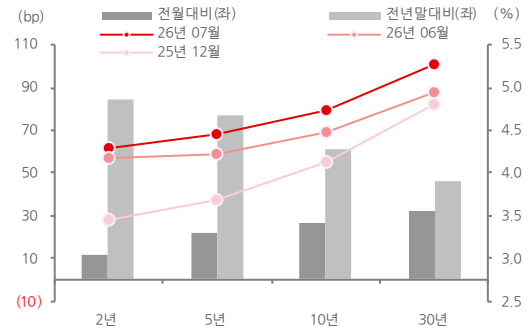
미국 시장 가격 지표

Fig.66 : 국채 만기별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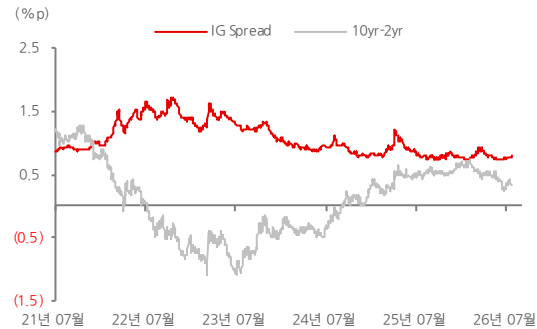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BNK투자증권

Fig.67 : 국채 수익률 곡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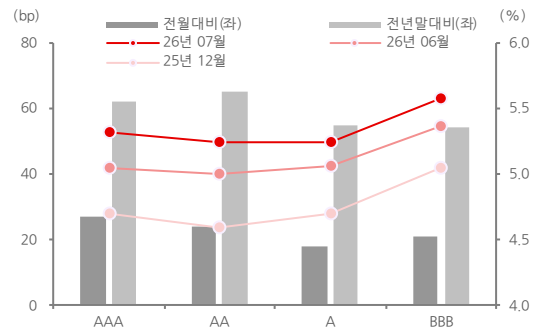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BNK투자증권

Fig.68 : 신용, 기간 스프레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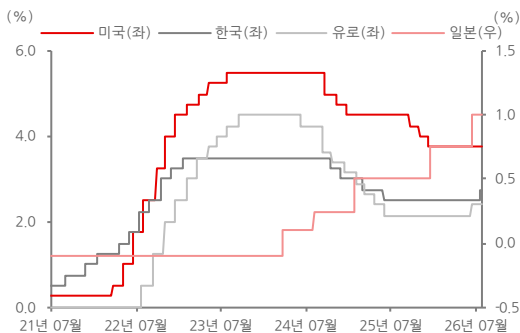
자료: FRED, BNK투자증권

Fig.69 : 회사채 등급별 수익률



자료: FRED, BNK투자증권

Fig.70 : 주요국 기준금리



자료: Bloomberg, BNK투자증권

Fig.71 : 주요국 국채 10년 금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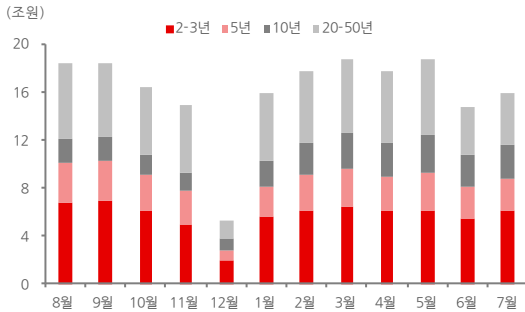
(단위: %)					
구분	한국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26.07	4.26	4.73	2.81	3.21	4.00
25.12	3.39	4.17	2.07	2.86	3.56
차이	0.88	0.57	0.74	0.35	0.44
최대	4.45	4.73	2.88	3.21	4.02
평균	4.29	4.59	2.78	3.09	3.89
최소	4.19	4.47	2.70	2.88	3.68

주) YTD(26년) 최대, 평균, 최소

자료: Bloomberg, BNK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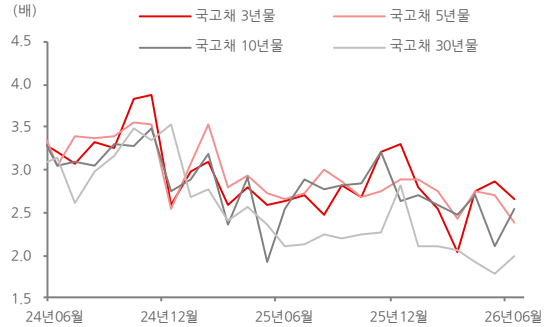
한국 시장 수급 지표

Fig.72 : 국채 월별 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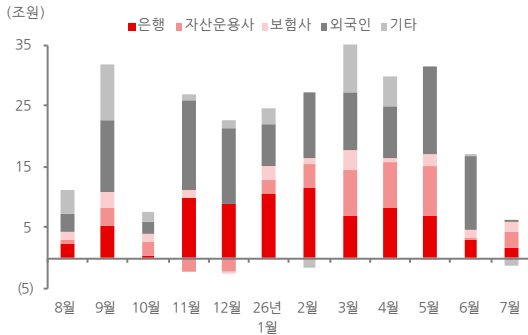
자료: 기획재정부, BNK투자증권

Fig.73 : 국채 응찰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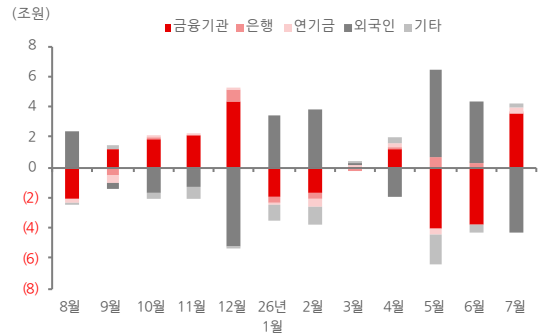
자료: 금융투자협회, BNK투자증권

Fig.74 : 국내 국채 투자자별 순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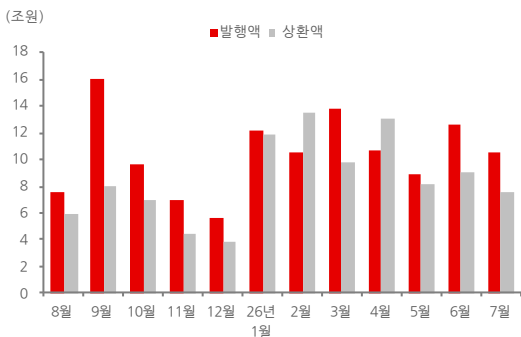
자료: 금융투자협회, BNK투자증권

Fig.75 : 국채선물10년(근월물) 투자자별 순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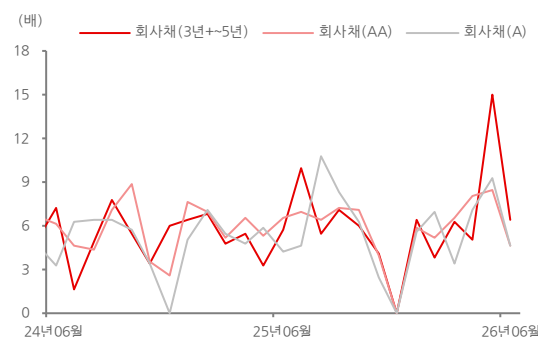
자료: 한국거래소, BNK투자증권

Fig.76 : 회사채 월별 발행, 만기물량



자료: 금융투자협회, BNK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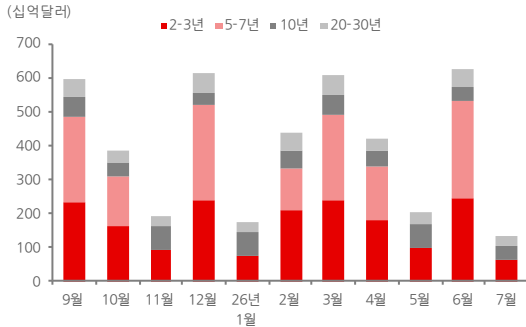
Fig.77 : 국내 회사채 응찰률



자료: 금융투자협회, BNK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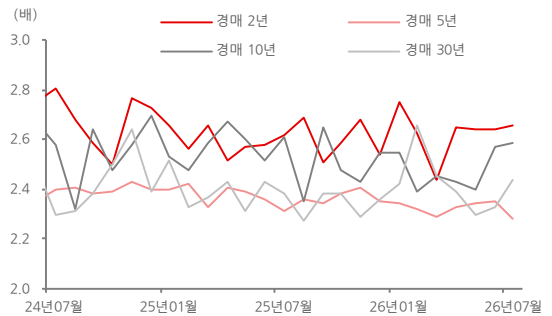
미국 시장 수급 지표

Fig.78 : 국채 월별 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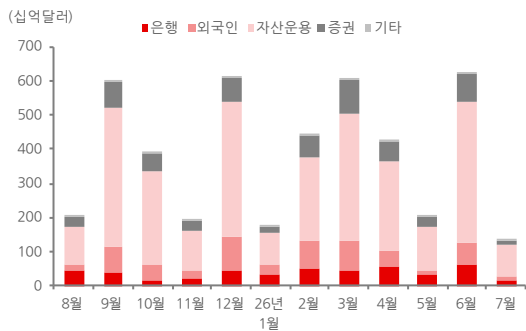
자료: 미국재무부, BNK투자증권

Fig.79 : 국채 응찰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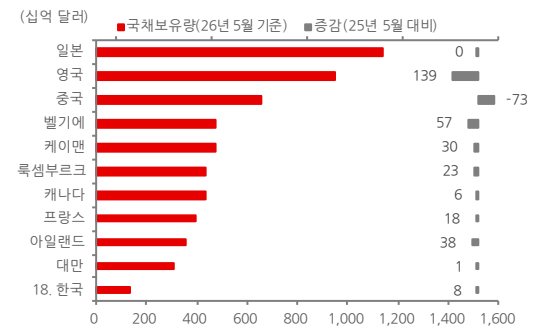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BNK투자증권

Fig.80 : 국채 투자주체별 응찰 매수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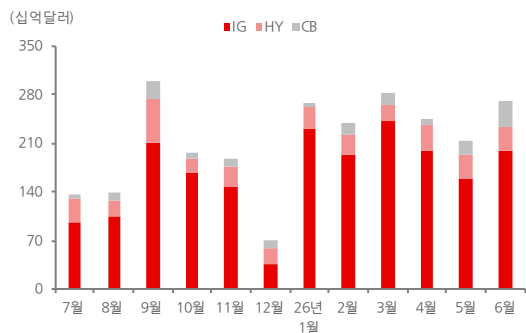
자료: 미국재무부, BNK투자증권

Fig.81 : 미 국채 국가별 보유량 Top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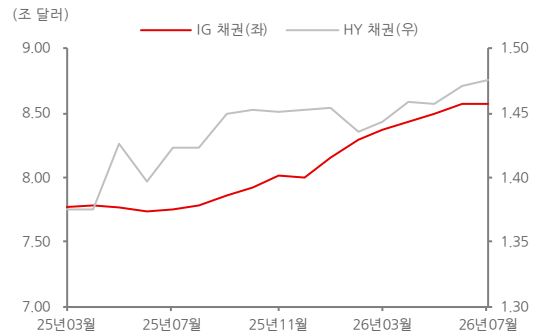
자료: 미국재무부, BNK투자증권

Fig.82 : 회사채 월별 발행



자료: Fed, BNK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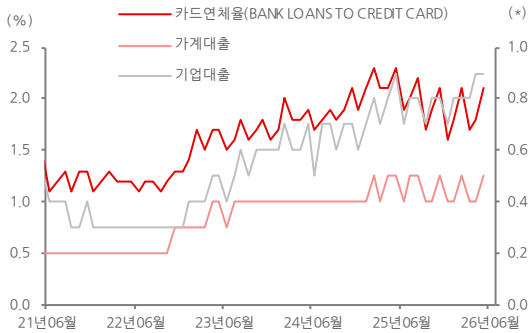
Fig.83 : 미국 IG/HY 채권 잔존액 추이



자료: Bloomberg, BNK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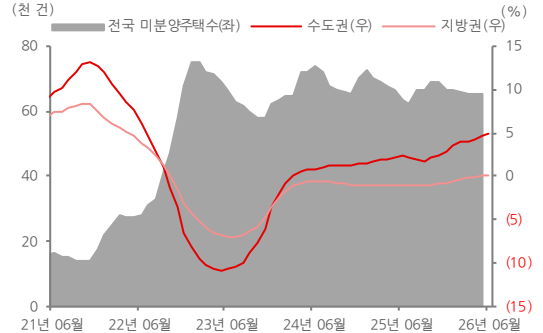
한국 모니터링 지표

Fig.84 : 주요 연체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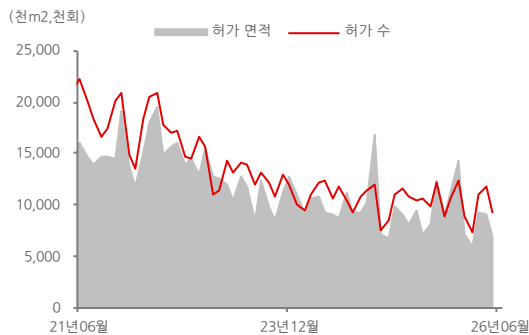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BNK투자증권

Fig.85 : 주택가격상승률, 전국 미분양 주택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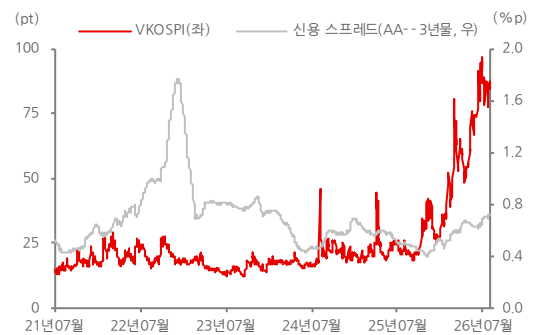
자료: 한국부동산원, BNK투자증권

Fig.86 : 건축 허가 면적 및 허가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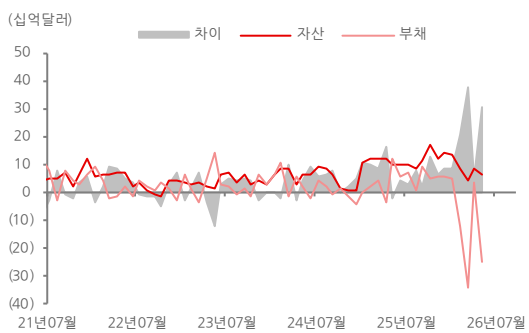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BNK투자증권

Fig.87 : VKOSPI, 신용 스프레드



자료: Bloomberg, 금융투자협회, BNK투자증권

Fig.88 : 증권투자수지 자산, 부채, 차이



자료: Bloomberg, BNK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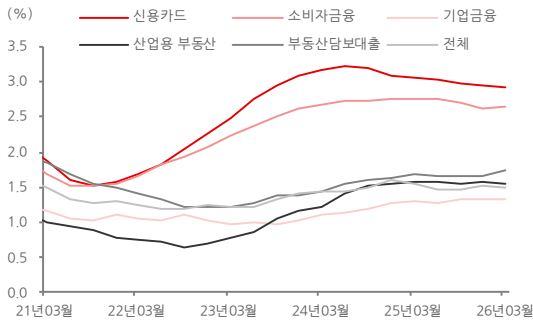
Fig.89 : 통화스와프 지표



자료: Bloomberg, BNK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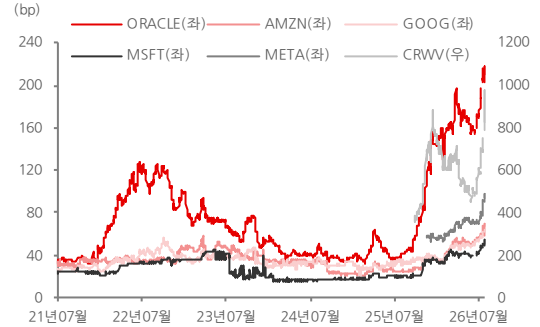
미국 모니터링 지표

Fig.90 : 주요 연체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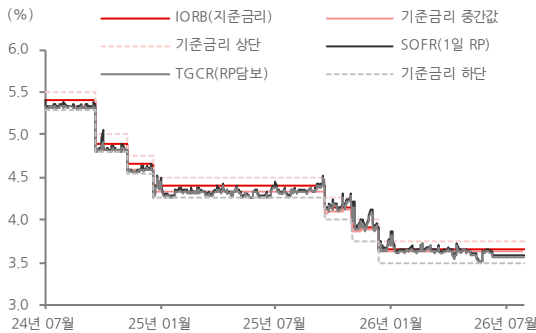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BNK투자증권

Fig.91 : 주요 CSP사 CD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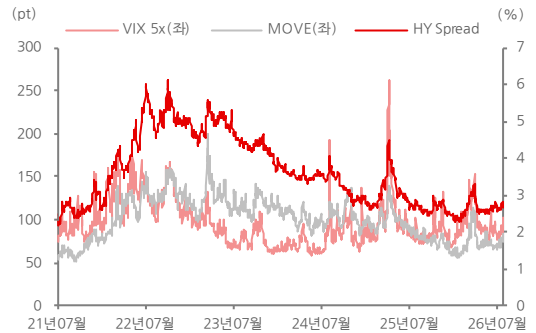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BNK투자증권

Fig.92 : SOFR, IORB, TCGR 등 유동성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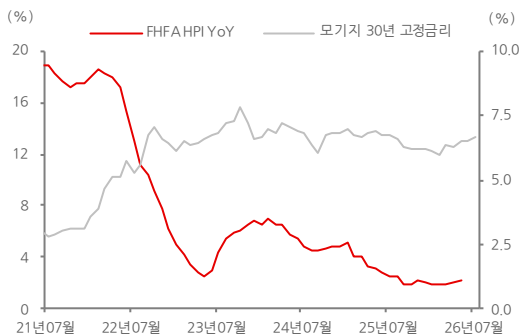
자료: FRED, BNK투자증권

Fig.93 : VIX, MOVE, HY Sprea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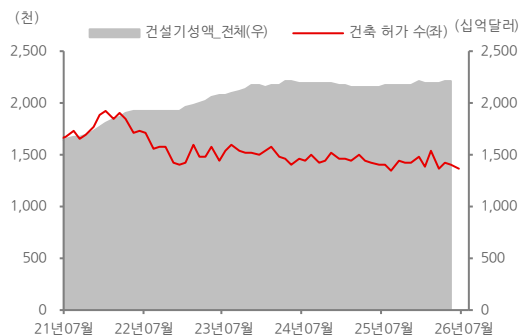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BNK투자증권

Fig.94 : FHFA HPI 상승률, 모기지 30년 금리



자료: Bloomberg, BNK투자증권

Fig.95 : 건설기성액, 건축 허가 수



자료: Bloomberg, BNK투자증권

신용등급 평정 주요 기업(26년 7월)

평가 유지	평정일	발행사	현재 등급	상세 내용
	7월 1일	현대커머셜	AA-	시장지위 우수, 자산포트폴리오 리스크 낮은 수준. 전반적인 재무건정성 우수,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따른 수익성 추이 모니터링 필요. 유사시 현대자동차의 지원가능성, 유동성 대응능력 우수
	7월 2일	대한해운	BBB+	우량 화주와의 장기운송계약에 기반하여 양호한 사업안정성 보유,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바탕으로 우수한 영업수익성 및 EBITDA 창출력 지속. CAPEX 투자 일단락 보유 선박 매각 등으로 재무구조 개선. 그룹 핵심 계열사로서 잠재적인 지원부담 존재
	7월 3일	강남제비스코	BBB-	국내 도료시장 내 양호한 시장지위 확보, 다각화된 사업 포트폴리오와 분산된 매출처를 보유하고 있어 사업안정성 양호. 도로 부문 수익성 개선은 어려울 전망이나, 비도로 부문의 우수한 수익성을 바탕으로 실적 보완이 가능할 전망. 우수한 재무안정성 지속 전망
	7월 6일	한국투자캐피탈	A	시장지위 양호하나, 자산포트폴리오 리스크 다소 높은 수준. 부동산 관련 대출의 부실 증가로 수익성 및 자산건전성 저하, 자본적정성 우수. 수익성 및 자산건전성 하방압력 지속 전망, 유사시 한국투자금융지주의 지원가능성. 유동성 대응능력 우수
	7월 6일	서영이엔티	BBB+	지배구조 상 하이테크로 그룹 내 핵심적인 지위 보유, 계열수요를 바탕으로 일정 수준 사업기반 확보. 비엔비코리아 인수를 통한 연결기준 외형 확대 전망, 회사 인수로 차입규모 확대되었으나 보유 지분가치를 통한 재무적 융통성 우수한 수준. 유사시 계열의 지원가능성
	7월 7일	JB우리캐피탈	AA-	시장지위 우수, 자산포트폴리오 리스크 다소 낮은 수준. 수익성 및 자본적정성 우수, 자산건전성 양호. 금리 상승에 따른 수익성 추이 모니터링, 자산건전성 하방 압력 지속 전망. 유사시 JB금융그룹의 지원가능성
	7월 9일	에스케이해운	A-	우량 화주향 장기계약 위주의 사업구조로 사업안정성 우수, 사선 중심의 선대 투자로 차입금 과중하나 영업현금창출력 우수. 수익성 양호한 신규 장기계약이 향후 영업실적에 기여할 전망. 중고선 인수 부담으로 단기적 재무부담 가중되었으나 점차 개선될 전망
	7월 9일	한진	BBB+	우수한 물류네트워크와 다각화된 사업포트폴리오에 기반한 사업안정성, 안정적인 이익창출력. 투자부담 축소에 따른 점진적인 재무부담 완화 전망. 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대한항공의 신용도 개선 추세
	7월 10일	미래에셋캐피탈	AA-	시장지위 양호, 자산포트폴리오 리스크 다소 높은 수준. 투자부문의 이익변동성과 조달금리 추이 모니터링 필요. 그룹의 실질적 지주회사로서의 특성과 보유 계열사 지분 가치에 기반한 재무융통성이 신용도 보완 요인, 유사시 미래에셋금융그룹의 지원가능성
	7월 13일	키움캐피탈	A	시장지위 미흡, 자산포트폴리오 리스크 다소 높은 수준. 재무건정성 양호, 유상증자에 힘입어 양호한 외형 성장세 및 이익창출력 지속 전망. 유사시 키움증권의 지원가능성
	7월 13일	우리금융캐피탈	AA-	업계 상위권의 시장지위, 자산포트폴리오 리스크 다소 낮은 수준. 우수한 수익성 및 재무건정성, 자산건전성 하방 압력 지속 전망. 유사시 우리금융그룹의 지원가능성
	7월 13일	아이엠캐피탈	AA-	시장지위 양호, 자산포트폴리오 리스크 다소 낮은 수준. 수익성 및 재무건정성 우수, 사업기반 확대 및 자산건전성 개선세 지속 전망. 유사시 iM금융그룹의 지원가능성
	7월 13일	엔에이치농협캐피탈	AA-	시장지위 우수, 자산포트폴리오 리스크 다소 낮은 수준. 수익성 및 자산건정성 우수, 자본적정성 양호. 자산건정성 하방 압력 상존하나, 양호한 수준 유지 전망. 유사시 농협금융그룹의 지원가능성
	7월 14일	하나캐피탈	AA-	업계 상위의 시장지위 보유, 자산포트폴리오 리스크 다소 낮은 수준. 수익성은 양호, 전반적인 재무건정성 우수. 수익성 및 자산건정성 저하로 모니터링 필요, 유사시 하나금융그룹의 지원가능성

평가 유지	7월 15일	신한캐피탈	AA-	시장지위 우수하나, 자산포트폴리오 리스크 다소 높은 수준. 수익성 개선되었으나 조달비용 및 대손비용은 부담 요인. 자산건전성 지표 2024년말 대비 개선된 수준이며, 자본적정성 양호. 유사시 신한금융그룹의 지원가능성
	7월 15일	한국캐피탈	A	양호한 시장지위, 자산포트폴리오 리스크 다소 낮은 수준. 자산건전성 저하 추세이나, 전반적인 재무건전성 우수. 자산건전성 하방 압력 지속 전망, 조달금리 추이 모니터링 필요. 유사시 군인공제회의 지원가능성, 유동성 및 재무용통성 양호
	7월 15일	케이씨씨	AA-	우수한 시장지위 및 사업경쟁력. 건자재, 도로, 실리콘으로 다각화된 사업포트폴리오. 양호한 이익창출력, 개선된 재무안정성 및 보유자산 기반의 우수한 재무용통성
	7월 16일	메리츠캐피탈	A+	그룹 연계를 통한 안정적인 영업기반, 기업금융과 자동차금융 중심의 영업자산 구성. 영업자산 손실부담 확대로 저하된 수익성, 건전성 지표 관리 수준 모니터링. 메리츠금융그룹의 유사시 지원가능성
	7월 20일	에스케이에코플랜트	A-	계열 주주 기반 및 다각화된 공종포트폴리오 등 사업안정성 우수, 포트폴리오 개편을 통해 이익창출력 제고 및 재무부담 일부 완화. 이익창출력 개선세 지속할 전망이다, 부채성자본 및 PF우발채무 모니터링 필요. SK그룹의 유사시 지원가능성, 유동성 대응 능력 우수
	7월 21일	MG캐피탈	A	외형 성장 재개, 자산포트폴리오 리스크 다소 높은 수준. 수익성 및 자산건전성 대폭 개선, 자본적정성 우수. 양호한 수익성 및 재무건전성 지속 전망, 유동성 대응능력 양호. 유사시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지원가능성
	7월 21일	롯데케미칼	AAA	동 회사채에 대한 신한은행/국민은행/우리은행/하나은행의 지급보증. 사채보증약정 조건 및 신한은행 등 보증인의 신용도
	7월 22일	신한자산신탁	A-	관리형토지신탁 및 담보신탁 부문을 중심으로 우수한 시장지위 확보. 대손비용 확대로 수익성 저하, 책임준공 의무 사업장 부실화로 자산건전성 저하 및 차입부담 확대. 신한금융그룹으로부터 의 비경상적 지원 수혜 가능성
	7월 23일	하나에프앤아이	A+	성장하는 부실채권 시장, 공고한 시장지배력. 개선된 수익기반 및 매입률 안정화 등을 바탕으로 양호한 수익성 지속, 양호한 자본적정성. 하나금융그룹의 유사시 지원가능성
	7월 24일	BNK캐피탈	AA-	시장지위 우수, 자산포트폴리오리스크 다소 낮은 수준. 수익성 및 자산건전성 양호, 레버리지 규제 한도에 따른 자본적정성 관리 부담 증가. 유사시 BNK금융그룹의 지원가능성
	7월 24일	DB캐피탈	BBB+	시장지위 미흡하며, 자산포트폴리오 리스크 다소 높은 수준. 전반적인 재무지표 양호한 수준이나, 부동산PF대출 부실 증가로 자산건전성 저하. 자산건전성 하방 압력 지속될 전망이며, 조달비용 및 대손비용 추이 모니터링 필요. DB손해보험의 유사시 지원가능성. 최근 유동성 지표 저하되었으나, 계열사 지원 가능성 감안시 유동성 양호
	7월 24일	애규온캐피탈	A	시장지위 양호한 수준이며, 회복 추세. 전반적인 재무지표 우수하나, 대손충당금적립률 미흡. 자산건전성 하방 압력 지속 전망, 자산건전성 개선 여부 모니터링 필요, 유동성 우수한 수준
	7월 24일	롯데캐피탈	A+	시장지위 우수하며, 자산포트폴리오 리스크 다소 낮은 수준. 전반적인 재무건전성 우수, 자산건전성 하방압력에도 우수한 수준 유지 예상. 유동성 우수
	7월 28일	비바리퍼블리카	A	종합 금융 플랫폼 '토스'를 운영하는 핀테크 기업. 우수한 수준의 플랫폼 기반 사업경쟁력. 2026년 1분기 매출액은 프로모션 지출의 영향을 받았으나 중장기적 성장기조 유지 전망. 운영자금 부담 확대로 재무안정성은 현 수준 대비 소폭 저하될 것으로 전망
	7월 30일	케이비캐피탈	AA-	업계 3위의 시장지위, 자산포트폴리오 리스크 다소 낮은 수준. 수익성 및 재무건전성 우수, 자산건전성 하방 압력 지속 전망. 유사시 KB금융그룹의 지원가능성, 시중은행계 캐피탈사로 재무용통성 매우 우수
	7월 30일	위드인천에너지	BBB	집단에너지사업의 안정적 사업 기반. 전력부문의 과소한 설비용량 및 열위한 급전경쟁력. 열요금 인상 및 저가열원 수열 에 기반 한 양호한 영업수익성 전망. 연료전지 설비 투자로 차입 부담 증가 전망. GS 계열 의 우수한 신인도 및 지원가능성

자료: 금융투자협회, 국내 신용평가 3사, BNK 투자증권

주요 일정표 8월

월	화	수	목	금	토
3	4	5	6	7	8
한국 7월 수출입 YoY 미국 7월 ISM 제조업	한국 7월 소비자물가 미국 6월 무역수지 미국 6월 JOLTS	미국 7월 ADP 고용 미국 7월 ISM 서비스업	한국 6월 경상수지	미국 7월 비농업고용 미국 7월 실업률 중국 7월 수출입 YoY	
한국 국고채 2년물 입찰	한국 국고채 30년물 입찰				
10	11	12	13	14	15
		한국 7월 실업률 미국 7월 CPI YoY 미국 7월 Core CPI	미국 7월 PPI YoY 유럽 6월 산업생산 일본 7월 생산자물가	한국 7월 수출입물가 미국 7월 소매판매 미국 8월 미시간대 소비자심리지수	
한국 국고채 3년물 입찰	미국 국채 3년물 입찰	미국 국채 10년물 입찰	미국 국채 30년물 입찰	한국 국고채 50년물 입찰	
17	18	19	20	21	22
일본 26.2Q 잠정 GDP 중국 7월 산업생산 중국 7월 소매판매 중국 7월 실업률	미국 7월 수출입물가 미국 7월 산업생산			한국 8월 수출~20일 한국 8월 수입 ~20일 한국 7월 생산자물가	
	한국 국고채 10년물 입찰	미국 국채 20년물 입찰			
24	25	26	27	28	29
	한국 7월 소비자심리 미국 7월 CB 소비자신뢰	미국 26.2Q 잠정 GDP 미국 7월 PCE YoY 미국 7월 Cor PCE YoY	중국 7월 산업생산 YoY	일본 6월 실업률	
한국 국고채 5년물 입찰	한국 국고채 20년물 입찰 미국 국채 2년물 입찰	미국 국채 5년물 입찰	한국 금융통화위원회 미국 국채 7년물 입찰 미국 잭슨홀 컨퍼런스	미국 잭슨홀 컨퍼런스 일본 BOJ 금리 결정	
31					
한국 7월 산업생산 한국 7월 소매판매					

자료: Bloomberg, 기획재정부, 금융투자협회, 미국 재무부, BNK 투자증권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들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 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이는 자료제공일 현재 시점에서 의견 및 추정으로 실제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를 유도할 목적이 아니라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목의 선택이나 투자의 최종결정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허락없이 복사, 대여, 재배포할 수 없습니다. 이 자료는 네이버에서 제공한 나눔글꼴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BNK 투자증권

고객지원센터 1577-2601 www.bnkfn.co.kr

<본사/영업부>

부산시 부산진구 새싹로1(부전동) 부산은행 부전동별관 3층, 4층 / [본사] T 051-669-8000 / F 051-669-8009
[영업부] T 051-669-8080 / F 051-669-8099

<서울영업부>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2길 24 (여의도동) BNK금융타워 6층 / T 02-3215-1500 / F 02-786-2998

<경남영업부>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3.15대로 642 BNK경남은행본점 1층 / T 055-290-7100 / F 055-290-7199

<울산영업부>

울산시 남구 중앙로 202 BNK경남은행 울산영업부 1층 / T 052-210-6900 / F 052-271-6111

BNK

BNK 부산은행 BNK 경남은행 BNK 캐 피 탈 BNK 투자증권 BNK 저축은행
BNK 자산운용 BNK 신용정보 BNK 시 스 템 BNK 벤처투자 BNK 씬농구단